

## 우리 나라 여러 지방들에서 전해지고있는 반침략애국주제의 전설들의 특징

리 동 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용감하고 지혜로운 인민이며 근로하기를 좋아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인민입니다. 특히 우리 인민은 외래침략자들과는 굴함없이 싸워 민족의 존엄을 지켜나가는 애국심이 강한 민족입니다.》(《김일성전집》 증보판 제3권 472페이지)

나라와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는것을 훌륭한 민족전통으로 간직하고있는 우리 민족은 먼 옛날부터 조국강토에 기여드는 외적의 침략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떨친 자랑스런 반침략애국투쟁력사를 가지고있다.

우리 나라의 수많은 고장들과 산봉우리, 골짜기들, 수천년을 흘러내리는 강줄기들과 천연바위들에도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나라를 지켜싸운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가 깃들여있다.

애국심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기 집뜨락에서부터 시작되며 자기가 사는 마을과 고장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설들을 종합하여 널리 소개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애국전통을 빛내이고 사람들속에 자기가 사는 고장들에 깃들어있는 선조들의 애국적인 투쟁내용들을 더 잘 알게 함으로써 자기 고장을 더욱 사랑하고 더 잘 가꾸어나가려는 애국의 마음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지금도 우리 나라 여러 지방들에서는 해당 지역인민들이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투쟁내용들과 관련된 전설들이 구체적인 지명이나 지물들과 결부되어 전해지고 있다.

우리 나라 여러 지방들에서 전해지고있는 반침략애국주제의 전설들을 종합하여보면 일련의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은 첫째로, 다른 주제의 전설들과 달리 그 시기와 장소가 명확하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설이라고 할 때 인민들에 의하여 창조된 구전설화의 한 형태로서 창조된 이후 오랜 세월을 거쳐 광범한 사람들속에서 부단히 보충되고 윤색되어오는것만큼 그 시대적배경과 창작시기, 연원적근거가 명백치 않은것이 적지 않다. 이로부터 여러 전설들에서는 그 시기와 장소에 대하여 《먼 옛날 어느 한 마을에》, 《옛날옛적 어느 산골에서》 등으로 밝히는것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나라 반침략애국주제전설들은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오랜 력사적기간을 내려오면서 그 시기와 장소가 명확히 전해오고있다.

우선 우리 나라 여러 지방들에서는 고구려시기 우리 인민들이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한 전설들이 전해지고있다.

이러한 전설들로는 평양시 대성구역의 아미산전설, 평안북도 피현군의 백마산전설, 평안북도 녕변군 동남리의 가장산전설, 평안남도 증산군 석다리의 석다산전설, 평안남도 속

천군 창동리의 열귀전설을 비롯하여 여러 전설들을 들수 있다.

그가운데서 평안북도 피현군의 백마산전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평안북도 의주군과 피현군사이에는 백마산이 우뚝 솟아있고 소나무, 잣나무, 이깔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있어 이 산은 예로부터 북방의 천험요새로 널리 알려졌다.

고구려 25대 왕인 장수왕때에 있는 일이다.

장수왕은 이웃나라 오랑캐두목인 풍홍이 자기 나라를 다른 오랑캐들에게 빼앗기고 의지할 곳이 없어 고구려에 와서 살것을 구걸하자 그에게 좋은 곳에 별장도 지어주고 장수와 신하들까지 보내주어 보살펴주도록 하였다.

그런데 오랑캐두목인 풍홍은 마음이 달라져서 고구려를 침입할 흉계를 꾸미고 몰래 지형도까지 만들어가지고 돌아났다.

하여 풍홍이네를 돌봐주던 손수장수는 장수왕에게 급보를 띄우고 단신으로 그놈들을 추격하였다.

도망치던 놈들은 손수장수가 자기들을 추격하는것을 알고 숨어서 그가 탄 말을 활로 쏘아죽이였다.

말을 잃은 손수장수는 너무도 안타까와 주먹으로 바위를 내려쳤다.

바로 이때였다.

손수장수가 주먹으로 내리친 바위가 갑자기 《쩌—엥》하는 소리를 내며 갈라지더니 그속에서 흰 안개가 피여오르면서 난데없이 《어흐흥—》하는 말의 울음소리가 울려왔다.

손수장수가 너무도 황홀하여 눈을 비비고 바라보니 백마가 그의 앞에 우뚝 서있었다.

손수는 지체없이 백마를 타고 산아래로 달려내려가며 장검을 휘둘러 달아나는 놈들이 타고가는 말장들을 내리쳤다. 말들이 꺼꾸러지자 놈들은 땅바닥에 나딩굴었다.

손수장수는 풍홍이 가지고 달아나던 성략도를 빼앗아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서 내던지고 백마의 고삐를 잡고 오던 길을 되돌아서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가 산말에 거의 다달았을 때였다.

방금 도망을 친 풍홍이가 제 졸개들을 이끌고 추격해오고있었다. 손수장수는 백마에 올라 장검을 빼들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백마는 놈들쪽으로 달리는것이 아니라 머리를 돌려 산마루로 향하는 것이였다.

순식간에 산마루에 오른 손수장수가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가파로운 산아래에 놈들이 달라붙어 올라오는것이 한눈에 보이는 그야말로 한명의 장부가 천명의 군사를 막아낼수 있는 요해지였다.

손수장수는 산우에 널려있는 바위들을 들어 놈들을 향하여 내리굴렀다. 돌사태가 쏟아져내리자 놈들속에서는 아비규환이 일어났다.

바로 이때 손수장수를 도우려 장수왕이 보낸 고구려군사들이 달려왔다.

싸움이 끝난 다음 손수장수가 문득 백마생각이 나서 돌아보니 말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손수장수는 백마가 나왔던 바위돌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모여선 군사들에게 말했다.

《이 산이야말로 고구려의 정기를 타고난 명산이로다. 이 산의 이름을 〈백마산〉이라 하고 여기에 큰 성을 쌓아 북방의 천험요새로 만들것이다.》

그때부터 백마산과 백마산성은 고구려의 손수장수와 더불어 그 이름이 길이 전해졌고 고려시기의 강감찬, 박서,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립경업 등 15명의 장수들과 인민들의 투쟁 업적을 오늘도 전하고있다. …

백마산전설에서는 은혜를 원썬로 갚은 의리도 모르는 북방오랑캐들을 쳐부신 손수장수와 고구려군사들의 투쟁내용을 백마의 출현과 결부시켜 펼쳐보이면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내용을 지명과 함께 전하고있다.

우리 나라 여러 지방들에서는 또한 고려시기 우리 인민들이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한 전설들도 전해지고있다.

이러한 전설들로는 황해남도 은률군 산동리의 투구봉전설과 삿갓봉전설, 황해남도 안악군 월정리의 관암봉전설, 황해남도 연안군 창덕리의 차돌이전설 등 여러 전설들을 들수 있다.

대표적인 전설로서 황해남도 은률군 산동리의 투구봉전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황해남도 은률군 산동리의 북쪽 묘래산마루에는 투구모양으로 생긴 봉우리가 있다.

이 봉우리를 가리켜 이곳 사람들은 지금도 투구봉이라고 하는데 이 봉우리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1380년 8월 상원수 라세와 부원수 최무선이 지휘하는 100여척의 고려함선은 서해안 일대에 기여들어 여러 고을들을 싸다니면서 살인과 방화, 약탈을 일삼는 왜적들을 쳐부서 러 례성강하구를 떠나 출전하였다.

충청도 금강하구에 있는 진포에 500여척의 왜적선이 정박하고있다는 통보를 받고 아침 일찍 떠난 배들은 한낮이 기울무렵에야 진포앞바다에 도착하였다.

최무선은 새로운 화약을 제조하고 대장군포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포들을 만들어 싸움 배들에 설치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싸움판에서 시험해볼수 있게 되었다.

고려함선들에 어떤 위력한 화약무기가 장비되어있는지 알길 없었던 왜적들은 여러척씩 묶은 선단들을 끌고 달려들었다.

순간 고려함선들에 설치된 화포들에서 동시에 불이 뿜어져나왔다.

고려군을 알보고 든든한 바줄로 묶은 선단을 이끌고 오만무례하게 덤벼들던 왜놈들은 고려수군의 위력한 화포앞에 오도가도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바다물에 처박혔고 500여척의 적함선들은 크게 저항해보지도 못하고 여지없이 녹아나고말았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력사에 길이 남은 진포해전이였다.

이 해전이 있는 후 라세와 최무선은 배를 타고 조선서해를 오르내리며 곳곳에 숨어 로략질을 일삼던 왜놈의 잔당들을 쳐없애는 소탕전을 벌리였다.

룽연, 은률일대에서는 백성들을 마구 해치고 재물과 난알을 약탈해가던 왜놈들이 라세장수가 지휘하는 고려수군들의 드세찬 공격앞에 무리로 쓰러져 이 일대의 바다와 산, 들판에는 왜적들의 주검이 한벌 깔리다싶이 하였다.

왜적들을 한바탕 쳐부신 라세와 최무선은 고려군사들과 함께 서해의 명산인 구월산에 올라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유유히 산을 내려 또다시 왜적을 치는 싸움길에 나섰다.

그들이 떠나간 날 밤이였다. 밤새껏 우뢰가 울며 비가 내리더니 새벽녘에는 씻은듯이 개였다.

새벽에 밖으로 나온 이곳 사람들은 구월산쪽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다. 어제 낮에 라

세와 최무선이 군사들과 함께 휴식을 하고 간 봉우리에 투구와 똑같이 생긴 봉우리가 솟아났던것이다.

사람들은 라세가 두고간 투구라고 하기도 하고 최무선이 두고간 투구라고 하기도 하면서 왜적들을 쳐부신 그들의 위훈을 자랑삼아 이야기하였다. ...

전설에서는 고려시기 우리 나라에 침입하여 갇은 만행을 저지르던 왜놈들을 쳐부신 진포해전의 역사적사실을 구월산기슭에 투구봉이 솟아난것을 환상적으로 펼쳐보이면서 서로 편관시켜 하나의 전설로 전하고있다.

우리 나라 여러 지방들에서는 또한 조선봉건왕조시기 우리 인민들이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한 전설들도 전해지고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우리 인민들의 반침략애국투쟁을 전하는 전설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임진조국전쟁시기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내용을 담은 전설들이다.

이러한 전설들로는 평안남도 안주시 구봉동의 구봉산전설, 라선시 조산리의 승전봉전설과 승전대전설, 함경남도 단천시 본산동의 방녀주당자리전설과 직절동의 장군산전설, 문호리의 전병사골전설, 신호리의 고리장마을전설, 담동리의 봉수봉전설, 화장리의 가웅주산성전설, 신흥군 길봉리의 당재전설, 강원도 천내군의 도장골전설, 황해남도 룡연군 장산리의 무과산전설, 삼천군 달천리의 흥률골전설, 봉천군 한정리의 류장군산전설, 황해북도 수안군 철산리의 생명골전설, 토산군 월성리의 토끼봉전설을 비롯하여 수많은 전설들이 전해지고있다.

이 전설들에서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우리 나라에 침입하였던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용맹을 떨친 유명무명의 인민들과 의병장들의 투쟁에 대하여 긍지높이 전하고있다.

대표적인 전설로는 강원도 천내군의 도장골전설을 들수 있다.

...강원도 천내군의 읍소재지를 감돌아흐르는 전탄강 서남쪽에는 깊숙한 골안이 있다. 여기를 가리켜 이곳 사람들은 《도장골》이라고 부르고있다.

이 골안을 《도장골》이라고 부르게 된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1592년 5월 하순 어느날이었다. 전탄강기슭에 있는 내골에서는 전탄역의 역리인 리도상과 그의 아들인 무림을 비롯한 역졸들과 역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들이 역마들에게 신길 말편자를 버리고있었다.

그러던중 그들은 왜놈들이 란리를 일으켰고 벌써 철령을 넘어 새까맣게 밀려오고있다는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이때 리도상은 으스러지게 주먹을 틀어쥐고 사람들에게 호소하였다.

《자고로 우리 조상들은 외적이 물려올 때마다 그놈들을 모조리 쳐부셨지 고스란히 앉아서 외적의 칼을 받아본적이 없소. 물론 지금 덤벼드는 왜놈들이 수적으로 많은것만은 사실이요. 그렇다구 가만히 앉아서 죽을수는 없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왜놈들을 죽쳐버리고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이 땅을 지켜내야 하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우리 인원으로 의병대를 묻자는거요.》

그의 말에 모두가 두 주먹을 흔들면서 찬성하였고 리도상은 대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렇게 의병대를 무은 그들은 다음날부터 손에 병쟁기를 들고 왜놈들을 쳐부시는 싸

움에 떨쳐나섰다.

그들은 밤마다 전탄역과 그 주변에 머무르고있는 왜놈들을 들이치는 소탕전을 벌리어 북쪽으로 향하는 왜놈들의 걸음을 저지시켰다.

이렇게 불철주야로 의병들을 이끌고 왜놈들을 반대하여 싸우던 리도상이 뜻밖에 왜놈들의 조총에 맞아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의병들은 리도상을 내골의 양지바른 언덕우에 안장하였다. 그때부터 이곳 사람들은 이름없는 역리였던 리도상이 안장되어있는 내골을 《도상골》이라고 불렀고 여기에 역마를 키우는 목장이 있다고 하여 《도장골》이라고도 불렀다...

이 전설에서는 임진조국전쟁시기 강원도지방에 기여들었던 왜놈들을 쳐부신 이 지방인민들의 투쟁을 해당 지역의 지명의 유래와 결부하여 전하고있다.

이러한 전설들은 우리 나라의 수많은 지방들에서 해당 지역들의 지명이나 지물들과 결부하여 전해지고있다.

물론 전설들에서는 그 형상에서 환상적인 수법들도 적용되었으나 그 전반내용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기여든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운 인민들의 투쟁내용을 생동하고 긍지높게 전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전설들이 실재한 력사적사실들에 기초한것으로서 그 시기와 장소까지도 명확히 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신빙성을 더해주고있다.

그 특징은 둘째로, 해당 지방의 지리적 및 위치상특성에 따라 내용상 투쟁대상이 구별되는것이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는 북으로는 북방오랑캐들의 침입이 많았고 남으로는 왜놈들의 침략책동이 많았다. 이런것으로 하여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내용들이 해당 지역의 지리적위치에 따라 전해지고있는것이다.

우선 평안남북도와 량강도, 함경북도지방들에서는 북방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이 지방인민들의 투쟁내용이 기본으로 전해지고있다.

원래 평안남북도지방은 변방지역이었으므로 북방침략자들의 침입을 자주 받았다. 이런것으로 하여 이 지방들에서는 력대로 북방침략자들의 침입을 반대하여 싸운 이 지방인민들의 투쟁내용들을 위주로 해당 지방의 지명들과 결부되어 전해지고있는것이다.

그러한 전설들로는 평안북도 염주군 반곡리의 명우령전설, 정주시의 달천전설, 피현군의 백마산전설과 충렬동전설, 동림군 산성리의 검산전설, 평안남도 안주시의 칠불사전설과 오도산전설, 숙천군 검산리의 최령강전설 등을 들수 있다.

여기에서 피현군의 백마산전설, 숙천군 검산리의 최령강전설은 고구려시기, 정주시의 달천전설, 피현군의 충렬동전설, 안주시의 칠불사전설과 오도산전설은 고려시기, 염주군 반곡리의 명우령전설, 동림군 산성리의 검산전설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우리 나라에 침입하였던 북방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이 지방인민들의 투쟁내용을 전하고있다.

북방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내용을 담은 전설들은 북부국경지대인 량강도와 함경북도지방들에서도 전해지고있다.

그러한 전설들로는 량강도 김정숙군 송전리의 류방동전설, 갑산군 신정리의 말늪평전설, 운흥군 대하리의 비둘기바위전설, 함경북도 무산군 박천리의 망돌이마전설, 연사군 연사읍의 붉은바위전설을 비롯하여 여러 전설들을 들수 있다.

이 전설들에서도 역시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던 북방침략

자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놈들을 쳐물리치는 싸움에서 용맹을 떨친 이 지방인민들의 투쟁내용을 해당 지역의 지명과 결부하여 전하고있다.

또한 평양시와 황해남북도, 강원도와 함경남도지방들에서는 왜놈들의 침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내용들이 위주로 전해지고있다.

대표적인 전설들로는 평양시 중구역 오란동의 오란전설, 모란봉구역 월향동의 가루개전설, 황해남도 은률군 연암리의 수리개산전설, 안악군 남정리의 전산전설, 배천군 금산리의 긴골전설, 봉천군 한정리의 류장군산전설, 룡연군 장산리의 무파산전설, 황해북도 연탄군 봉재리의 장구산전설, 토산군 월성리의 토끼봉전설, 장풍군 사시리의 시야시리전설, 수안군 철산리의 생명골전설, 함경남도 단천시 본산동의 방녀주당자리전설, 적절동의 장군산전설, 문호리의 전병사골전설, 신흥리의 고리장마을전설, 답동리의 봉수동전설, 화장리의 가음산성전설, 강원도 천내군의 도장골전설, 문천시의 옥평동전설, 통천군의 총석정전설, 고성군 남애리의 용천전설 등 수많은 전설들을 들수 있다.

이 전설들에서는 력대로 우리 나라에 침입하였던 왜놈들의 침입을 물리친 해당 지역 인민들의 투쟁을 전하고있는데 그가운데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것이 임진조국전쟁(1592—1598)시기 왜놈들을 반대하여 싸운 인민들의 투쟁내용들이다.

특히 함경남도 단천지방에서 전해지고있는 전설들은 모두가 임진조국전쟁시기 투쟁내용을 해당 지명들과 결부하여 전하고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우리 나라 여러 지방들에서 전해지고있는 반침략애국주제의 전설들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으로 하여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내용들이 각이하게 전해지고 있다.

그 특징은 셋째로, 지난날 나라를 지켜싸운 각이한 계층의 투쟁내용을 반영하고있다는 것이다.

나라를 열렬히 사랑하고 정의감이 강했던 우리 민족은 조국강토에 대한 외적의 침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으며 신분과 귀천,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이 땅을 지켜 용감하게 싸웠다. 그들속에는 애국명장들도 있었고 평범한 농군들과 중, 이름없는 녀성들과 지어는 신분이 천한 노비나 기생들도 있었다.

우선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용맹을 떨친 애국명장들과 의병장들의 투쟁내용을 주제로 한 전설들이 전해지고있다.

그러한 전설들로는 고구려의 애국명장인 을지문덕과 관련한 평안남도 증산군 석다리의 석다산전설, 고려시기 최무선과 라세의 투쟁내용을 반영한 황해남도 은률군 산동리의 투구봉전설, 임진조국전쟁시기의 해전명장인 리순신의 투쟁내용을 해당 지물이름이 불리우게 된 유래와 결부시켜 전하고있는 라선시 조산리의 승전봉전설과 승전대전설 등을 들수 있다. 함경남도 단천시 답동리의 봉수동전설에서는 임진조국전쟁시기 관북의병장으로 명성을 떨친 정문부의 투쟁내용을, 황해남도 삼천군 달천리의 홍률골전설에서는 서산대사의 투쟁내용을 전하고있다.

우리 나라 여러 지방들에서 전해지고있는 반침략애국주제전설들에서는 해당 지방에서 배출한 각계각층의 평범한 인민들의 투쟁내용들이 기본을 이루고있다.

전설들에서는 해당 지방에서 배출한 의병장들로부터 평범한 녀인들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인물들의 투쟁내용들을 전하고있다.

실례로 함경남도 단천시 직절동의 장군산전설은 의병장인 심칠곡의 투쟁내용을, 단천시 화장리 가웅주산성전설에서는 의병장들인 김응진, 박형전의 투쟁내용을, 함경남도 신흥군 길봉리의 당재전설에서는 의병장인 정혜택의 투쟁내용을 전하고있다. 이 전설들은 모두 임진조국전쟁시기 해당 지방에서 배출한 의병장들의 투쟁내용과 관련된것이다.

전설들에서는 외적의 침입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이름없는 녀인들의 투쟁내용들도 전하고있다.

황해남도 은률군 산동리의 금란굴전설에서는 고려시기 자기 마을에 기여들었던 왜놈들을 동굴속으로 유인하여 쳐부신 이 고장의 평범한 녀인인 금란녀성의 투쟁내용을 전하고있다. 함경남도 단천시 본산동의 방녀주당자리전설에서도 임진조국전쟁시기 이 고장에 기여든 왜놈들을 자기의 한목숨을 바쳐 은광이 나오는 갯도속으로 왜놈들을 유인하여 모조리 족쳐버린 방녀주라는 평범한 녀인의 투쟁내용을 전하고있다. 함경북도 연사군 연사읍의 붉은바위전설은 북방침략자들은 반대하여 녀인의 몸으로 손에 칼을 들고 싸운 김씨처녀에 대한 이야기이며 함경북도 무산군 박천리의 망돌이마전설은 자기 고장에 기여든 북방오랑캐들을 쫓아낸 지혜로 물리친 이름없는 녀인의 투쟁내용을 전하고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 여러 지방들에서 전해지고있는 반침략애국주제의 전설들에서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자기가 사는 고장을 지켜싸운 평범한 인민들의 투쟁내용이 수없이 전해지고있다.

참으로 우리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나라를 지켜싸운 인민들의 투쟁내용이 깃들여있지 않은 곳이 없다.

물론 이 전설들에는 환상과 과장의 수법이 적지 않고 해당 인물들을 지나치게 비범화하였다는가, 계급적으로 모호한 내용들이 반영된것과 같은 제한성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전설들은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인민의 반침략애국투쟁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오늘도 해당 지역인민들속에서 널리 전해지고있으며 모두가 자기 고장의 자랑으로 여기고있다.

우리는 우리 나라 여러 지방들에서 전해지고있는 이러한 전설들을 적극 수집정리하고 널리 알려 소개선전함으로써 모두가 자기 지방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반침략애국주제, 전설